

『字類註釋』異字同釋 “잔”의 변별적 의미 분석*

郭鉉淑**

目 录

1. 들어가기
 - 1.1 ‘異字同釋’ 정의
2. 『字類註釋』 ‘잔’의 변별적 의미
 - 2.1 『字類註釋』 한글품이 분석
 - 2.2 『字類註釋』 한문주석 분석
 - 2.3 『字類註釋』 ‘잔’의 의미 비교
3. 청동기학에서 ‘잔’의 변별적 의미
 - 3.1 ‘잔’의 정의
 - 3.2 청동기학에서 ‘잔’의 분류
 - 3.3 청동기학에서 ‘잔’의 의미 비교
4. ‘잔’의 변별적 의미
5. 나오기

1. 들어가기

『字類註釋』은 1856년 鄭允容이 편찬한 한자 사전으로 10,968자의 한자를 5부 35류의 의미 영역별로 한자를 나누어 수록하고 있는 분류어휘집이다.¹⁾

* 이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논문(韓國朝鮮時代《字類註釋》之 異字同釋字整理與研究)을 기저로 보완 및 증보를 하여 2016년 한국중어중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을 밝힌다.

** 慶星大學校 韓國漢字研究所 專任研究員

1) 『字類註釋』 분류 항목-5부 35類

- 天道部(499): 天文, 天時, 造化
- 地道部(1,298): 土石, 水火, 山川, 地形, 方域, 郡國, 四夷, 田里

『字類註釋』은 여타 분류어휘집들보다 수록 한자 수가 많고 표제자에 대한 한글 풀이, 자음, 한문 주석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사전 유형으로 의미 영역별로 한자를 수록한 분류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그리고 낱개의 한자가 표제항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의미, 발음, 형태 정보를 제공하는 풀이항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뜻풀이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³⁾

『字類註釋』과 같이 한자를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여 각 한자에 대한 한글 풀이를 달고 있는 분류형 사전은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한자를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여 수록하다 보니 하나의 한자를 부류마다 다르게 훈을 매기거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미를 지니게 하거나 여러 한자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여 오히려 한자의 의미 혼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字類註釋』에 나오는 ‘鍾’자는 ‘音樂類’에서 ‘북’의 의미를 가지고 ‘器容類’에서는 ‘술그릇’의 의미를 가진다. 4) 그리고 ‘道/路/途/坵/堦’의 한자는 『字類註釋』田里類에서 ‘길’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각 표제자에 대한 상세한 의미 풀이가 있는 풀이항이 있다. 5) 특

- 人道部上(4,396): 倫常, 身體, 性情, 惡類, 學業, 言語, 事爲, 農業, 飲食, 衣冠, 居處, 魚鼈, 蟲豸
- 人道部下(2,514): 器用, 寶貨, 疾病, 喪祭, 政教, 法禁, 兵陣, 音樂
- 物類部(2,261): 名數, 草木, 禽獸, 魚鼈, 蟲豸

- 2) 백과 사전 정의를 따르면 분류 사전이란 단어의 문치를 주제별로 분류한 뒤, 최하위 주제 아래 모인 단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字類註釋』은 한자들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의미 항목 별로 한자들을 분류하여 수록한 점에서 분류 사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3) 『字類註釋』 정보 유형

표제항	풀이항			비고
표제자	한글 풀이	자음	한문 주석	출처
埤	그를	딜	陰翳。又딜, 貯也, 止也。	天時類 01101

곽현숙, 「朝鮮時代《字類註釋》之異字同釋字整理與研究」, 중국 상해화동사범대학 박사학위논문, 2013. 19p.

- 4) 곽현숙, 「朝鮮時代《字類註釋》之異字同釋字整理與研究」, 중국 상해화동사범대학 박사학위논문, 2013. 30p.

睽, 睥, 睨, 睇 등 23개의 표제자는 모두 ‘볼’이라는 동일한 한글 풀이를 가졌다. 여기서 “視, 見, 覽, 觀, 覲, 覩, 覘, 睇, 睨, 看, 矚, 眺, 睇, 瞻, 瞰, 睇, 睥, 睨, 睇, 睇” 등의 한자는 ‘異字’가 되는 것이고, 한글 풀이 ‘볼’은 ‘同釋’이 되는 것이다.⁶⁾ 『字類註釋』의 한글 풀이가 『訓蒙字會』, 『類合』 등 이전 자료들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많은 異字同釋 현상이 나타나는 양상은 『字類註釋』의 한글 풀이에 보이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異字同釋은 5부 35류의 의미 영역별로 모두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字類註釋』에 총 10,968자의 표제자는 6,076개의 의미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1,993개 의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異字同釋에 포함되는 한자는 6,885자(즉, 전체 표제자 10,968자 중 이자동석자가 아닌 4,083자를 제외한 수량)로 전체 표제자의 절반이 넘는 수량이다.⁷⁾ 이러한 異字同釋 현상은 적게는 2글자 3글자, 많게는 50글자까지도 나타난다.⁸⁾

6) 곽현숙, 「朝鮮時代《字類註釋》之 異字同釋字整理與研究」, 중국 상해화동사범대학 박사 학위논문, 2013. 113p.

7) 『字類註釋』異字同釋 수량분석(*표시는 이자동석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 수량이다.)

이자동석	이자동석 수량	이자동석자 수량	이자동석	이자동석 수량	이자동석자 수량	이자동석	이자동석 수량	이자동석자 수량
1	4083*	4083*	10	15	150	19	3	57
2	1085	2170	11	12	132	20	2	40
3	344	1032	12	4	48	21	2	42
4	226	904	13	9	117	22	2	44
5	109	545	14	6	84	23	2	46
6	61	366	15	7	105	26	1	26
7	42	294	16	1	16	27	1	27
8	28	224	17	4	68	30	1	30
9	21	189	18	4	72	57	1	57
						Total	6,076	10,968

8) 곽현숙, 「朝鮮時代《字類註釋》之 異字同釋字整理與研究」, 중국 상해화동사범대학 박사 학위논문, 2013. 55p.

이렇게 많은 수량의 異字同釋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첫째, 한자 본래 의미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옛날에는 한자 수가 많지 않아서 한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 자형을 알아보기 쉽게 또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방을 더하거나 그 뜻에 맞게 자형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글자들은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고, 동일한 자형이지만 시대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다르게 사용되거나 변화되었다. 즉 어떤 시대에서 보느냐에 따라 고금의 관계, 이체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통가의 관계, 정속의 관계 등 동일한 한자이지만 그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둘째, 『字類註釋』은 많은 수량의 한자를 의미 영역별로 나누어 수록한 분류 사전으로 단어의 다양성을 분류하고 풍부성을 고려 할 때 중복이 되거나 교차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한자가 하나의 의미 항목에 분류될 때도 있고, 다른 여러 의미 항목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肱’자는 ‘목구멍’과 ‘목’의 의미로 하나의 의미 항목인 ‘身體類’에 각 각 분류되어 나타나고, ‘黠’자는 ‘어둑’의 의미로 ‘天時類’에, ‘검을’의 의미로 ‘倫常類’에 다른 의미 항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⁹⁾ 이러한 이유로 정윤용이 당시 『字類註釋』을 편찬할 때 표제자와 그 의미를 분류하고 수록함에 있어서 복잡한 異字同釋 현상이 많이 나타났을 것이다.¹⁰⁾

2. 『字類註釋』 ‘잔’의 변별적 의미

『字類註釋』에 수록된 표제자는 모두 한글 풀이와 한문 주석이 있다. 이 한문 주석에는 표제자에 대한 상세한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 異字同釋은 다수의 한자가 동일한 한글 풀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풀이로는 상호간의 의미

9) 곽현숙, 「朝鮮時代《字類註釋》之 異字同釋字整理與研究」, 중국 상해화동사범대학 박사 학위논문, 2013. 30p.

10) 곽현숙, 「朝鮮時代《字類註釋》之 異字同釋字整理與研究」, 중국 상해화동사범대학 박사 학위논문, 2013. 54p.

적 차이를 살펴 볼 수 없다. 그래서 異字同釋의 경우 한문 주석을 통해 매 한자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변별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異字同釋 ‘잔’을 대상으로 한글 풀이와 한문 주석을 분석하여 異字同釋 상호간에 나타나는 변별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1 한글 풀이 분석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잔’의 이자동석에 해당하는 예는 모두 13자로 ‘罍, 爵, 卣, 罇, 壘, 罍, 榼, 觥, 卮, 盃, 盞, 罍’ 등이다. 이들이 『訓蒙字會』(1527), 『新增類合』(1576), 『國漢文新玉篇』(1908), 『字典釋要』(1909), 『漢鮮文新玉篇』(1913), 『字典大解』(1913), 『新字典』(1915), 『漢字大典』(1988) 등 한국의 역대 한자사전에서는 한글 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¹¹⁾

표1

한자/서명	『訓蒙字會』	『新增類合』	『字類註釋』	『國漢文新玉篇』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字典大解』	『新字典』	『漢字大典』
罍	잔	*	잔	잔	옥잔	옥잔	옥잔	옥잔	옥잔
爵	*12)	버슬	잔/버슬	*	작위/잔	작위/작목/ 버슬일홈/ 술스준	작위/작목/ 버슬일홈/ 술스준	버슬/봉함/ 잔	버슬·작위/ /봉함
卣	*	*	잔	잔	*	중술스준	중술준	중술준	중술통·술 통
罇	*	준	잔	잔	술준	질그릇전	술준	질술준	질술준·술 통
壘	준	*	잔	잔	술잔	술스잔/세 슈스그릇	술잔/세슈 그릇	퇴문노은술 잔/세슈그 릇	퇴문농은술 잔/세슈그 릇
罍	*	*	잔	잔	술잔	술스잔	술잔	퇴문노은술 잔	*

11) 자료는 한국한자연구소가 구축한 한중일 고대한자사전 통합 데이터베이스, 한국 근대 시기 한자사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欄	*	*	간	간	갈우회치장	갈우회치장 /술사간	갈우회치장 /술간	술간에외문 늘/갈자루 색입늘	술간에너문 새길/갈자 루에새김놓 을
躡	간	*	간	간	너`되드리 술준	벌스주잔/ 항음주에스 는너되드리 잔	너되드리술 준	잔/별술잔	잔/잔질할 ·술마실
觸	간	간	간	간	간	간	간	잔/잔질할	잔/잔질할 ·술마실
栢	*	*	간	간	간	간	간	술잔	술잔
扨	대야	*	간	간	간	술사간/물 드리논풀일 흙	술잔/물드 리는풀일흙	잔/기치	간
溫	*	*	간	간	간	간	간	간	간
盟	*	*	간	간	연`향`술 준	술사준	연향술준	큰술국이	큰술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 풀이만 분석하면 『訓蒙字會』나 『字類註釋』에서는 보다 일반적 의미의 상위 개념만을 알 수 있으나 이후 『字典釋要』나 『漢鮮文新玉篇』, 『新字典』 등에서는 의미적으로 매우 구체화되고 세밀화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윤용이 『訓蒙字會』를 확장하여 『字類註釋』을 편찬했다는 취지를 생각해 볼 때 『訓蒙字會』에 비해 수록 한자 수도 훨씬 많고 한글 풀이의 양상도 구체화 개별화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字類註釋』이 한글 풀이와 함께 한문 주석을 동반하여 한문 주석에서 구체적 의미를 설명한다는 체제적 특징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한문 주석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2.2 한문 주석 분석

여기에서는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을 중심으로 『訓蒙字會』, 『新增類合』, 『國漢文新玉篇』,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 등 한문 주석의 수록

12) 해당하는 한자자전에 해당하는 표제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이다.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 자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康熙字典』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字類註釋』은 조선시대에서 근대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편찬된 것으로 『字類註釋』이후 편찬된 근대시기 자전의 의미 설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이에 『字類註釋』과 후대 편찬된 근대 시기의 한문 주석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자전간의 의미 수용 여부와 의미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본고의 대상 한자 13자에 대한 한문 주석과 『康熙字典』의 한문 주석과의 일치 여부는 한자의 의미를 규명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字類註釋』이나 다른 근대 시기 자전에 수록되어 있는 의미 형성에 『康熙字典』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2

한자/서명	『訓蒙字會』	『新增類合』	『字類註釋』	『國漢文新玉篇』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字典大解』	『新字典』	『康熙字典』
罍	小杯。又尊名。	*	殷曰罍，玉爵。	商爵，鬱鬯之尊，玉罍。	玉爵。	商爵，鬱鬯之尊，玉罍。	玉爵。	玉爵。	玉爵也。
爵	*	*	周曰爵，中有鬯酒。又位也。封也，爵椽。	位也，封也，爵祿。官名，主爵。又飲器，受一升。康爵，洞爵。	位也。飲器。雀見。	位也。封也，爵祿。官名，主爵。飲器，受一升。康爵，洞爵。	位也。封也，爵祿。官名，主爵。飲酒器，受一升，康爵，洞爵。	位也。○封也。○飲器，受一升。	禮器也。象爵之形。中有鬯酒。竹器，所以酌酒也。爵位也。封也。
卣	*	*	盛酒，中尊，在禮彝之間。	中尊，盛鬱鬯者。	*	中樽，盛鬱鬯者。	中尊盛鬱鬯者。	中尊，盛鬱鬯者，在禮彝之間。	中尊器也。
罍	*	*	酒器。	酒器，瓦尊。	酒器。	瓦器緣。	酒器，瓦尊。	酒器瓦尊。	說文酒器字本作尊。後加缶，加木，加瓦，加土者，隨俗所見也。
罍	*	*	酒尊。小罍，瓦罍，大罍，皆畫雲雷形。	酒器，罍器，皆畫雲雷。	酒器。	酒器。罍器，皆畫雲雷。	酒器，罍器，皆畫雲雷。	酒器畫雲雷形。○罍器。	罍或从缶作罍。龜目酒尊，刻木作雲雷象，象施不窮也。酒尊也。
甗	*	*	甗也，垂也。	甗也。盧籀文。	甗也。	甗也。盧籀文。	甗也。盧籀文。	甗也。○唐籀文。	甗也。

櫛	*	*	酒尊，雲雷象。又劍飾，櫛具。鹿盧。	酒尊，雲雷象。又劍飾，櫛具。	劍上飾。櫛具。	劍上飾，櫛具。酒尊，雲雷象。	劍上飾，櫛具。酒尊，雲雷象。	酒樽，作雲雷象。○櫛具，劍飾。	龜目酒尊，刻木作雲雷象，象施不窮也。
觶	小杯。又尊名。	*	酒觶，鄉飲酒角也，罰爵。	鄉飲酒角，受四升。罰爵。	酒器，受四升。	罰爵。鄉飲酒角，受四升。	鄉飲酒角，受四升。又罰爵。	鄉飲酒角。○罰爵。	鄉飲酒角也。酒觶也。罰爵也。
觥	酒卮總名。	*	酒卮總名。一升曰爵，二升觚，三升觶，四升角，五升曰散。總名曰爵虛，曰觥實，曰觥。飲人以酒亦曰觥。	酒卮總名。	酒卮總名。	酒卮總名。	酒卮總名。	酒卮總名。○盞觥。	酒卮總名。飲人以酒亦曰觥。盞觥。
栴	*	*	飲器，栴捲，鬮也。	飲器，栴捲。	飲酒器。	飲器，栴捲。	飲器，栴捲。	栴捲，飲器。	鬮也。本飲器。俗作盃，通作杯。
卮	*	*	飲酒器。又紫染草名，赤色。	飲酒器，染草名。	酒器。	酒器。染草名。	飲酒器。染草名。	飲酒器。○染草名。	圓器也。一名卮，所以節飲食。象人，卪在其下也。酒器也。
盃	*	*	杯也。	盃也。	盃也。	盃也。	盃也。	栴也。	栴也。
罍	*	*	禮器，罍屬。	禮器，罍屬。	禮器。	禮器，罍屬。	禮罍，罍屬。	禮器，罍屬。	禮器也。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은 한글 풀이에 비해 상당히 상세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字類註釋』의 한글 풀이에는 동일하게 ‘잔’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문 주석에서는 ‘玉爵’, ‘盛酒中尊’, ‘酒尊’, ‘飲器’, ‘禮器’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은 대체적으로 『康熙字典』의 주석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罍’의 경우를 살펴보면 『訓蒙字會』에서 『字類註釋』에 이어 『國漢文新玉篇』까지 한글 풀이가 모두 ‘잔’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字典釋要』에서부터 상위 개념의 ‘잔’이 아닌 ‘옥잔’으로 한글 풀이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옥잔’의 한글 풀이는 『字典釋要』보다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에 먼저 볼 수 있는데 이는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이 한글 풀이보다 더 자세하

고 상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이 이후 근대시기에 편찬된 여러 사전의 의미 항목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罍, 罍, 櫺, 觶, 卮’ 등의 한자도 마찬가지다. 『字類註釋』은 한문 주석에서 『字典釋要』나 『漢鮮文新玉篇』, 『新字典』 등과 같이 ‘옥잔(罍)’이나 ‘갈우희치장(櫺)’, ‘벌술잔(觶)’ 등의 의미를 알 수 있으나 한글 풀이는 상위 개념의 ‘잔’으로만 처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 등의 한문 주석이 한글 풀이와 일치하는 것에 반해 『字類註釋』은 한글 풀이와 한문 주석이 1:1로 같은 경우가 있고 한문 풀이가 다른 경우도 있다. 같은 경우는 한글 풀이를 그대로 한문 주석에 풀이한 것이고 다른 경우는 대부분 한글 풀이로 나타낸 상위 개념의 의미를 풀이하고, 나아가 그 상위개념의 의미에서 확장하여 좀 더 구체적이거나 자세한 의미 풀이를 덧붙여 놓은 것이다.

2.3 『字類註釋』 “잔”의 의미 비교¹³⁾

‘罍, 爵, 卮, 罇, 罍, 罍, 櫺, 觶, 觴, 栝, 卮, 盃, 罍’ 등의 표제자는 모두 [잔]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13자 모두 한글 풀이에 제시된 의미는 [잔]으로 동일하지만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각 표제자의 변별적 의미를 알 수 있다. 가령 ‘爵’은 『字類註釋』에서 두 가지 의미항목을 가진다. 첫째, [잔 작]. 둘째, [벼슬 작]이다. 여기서 [잔]과 [벼슬]의 의미를 동일한 단어의 의미항목으로 볼 것인지, 다른 단어의 의미항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爵’은 옛날 제사에 쓰던 의식용 ‘술잔’을 그렸는데 마침 참새가 앉은 듯한 아름다운 자태의 술잔을 형상적으로 그렸다. 이후 윗부분이 술잔을 잡는 손으로 바뀌고 자형이 변해 지금처럼 되었으며 그런 잔이 지위를 대변해준다 하여 ‘관직’이

13) 한국중어중문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중어중문학 연구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신진 연구자 논문 발표회)의 취지에 따라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완 및 증보한 것으로 일부 분석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과 동일함을 밝힌다.

나 ‘작위’에서와 같이 ‘직위’를 뜻하게 되었다. 이렇듯 각 각의 의미가 근접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한 단어의 서로 다른 의미항목으로 판단하였다. ‘卮’ 역시 위의 ‘爵’과 같이 『字類註釋』에서 두 가지 의미항목을 가진다. 첫째, 잔[치]. 둘째, [染草名, 紫赤色]이다. [染草名, 紫赤色]은 『字類註釋』이 이후 편찬된 『漢鮮文新玉篇』, 『字典大海』 등에서 한글 풀이와 한글음이 모두 ‘물드리난풀일 흙[치]’로 나타난다. ‘卮’은 『說文』에서 ‘圓器也。一名觥, 所以飮飲食。象人, 卩在其下也.’라 하여 사람이 어디에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는 술통 앞에서 술을 뜨고 있는 모습으로 ‘술잔’의 뜻을 가진듯하다. 그러나 [술잔]과 [染草名, 紫赤色]의 의미항목의 연관성은 없다. 이렇듯 각 각의 의미항목의 관계가 무관하거나 혹은 서로 거리가 멀 때에는 비록 동일한 자형에 들어 있는 의미항목이나 다른 단어로 간주하여 ‘잔’에 대한 의미항목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한 문 주석에 나타난 의미항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¹⁴⁾

6388	罍	[잔] [殷曰罍] [玉爵]
6389	爵	[잔] [周曰爵] [中有鬯酒] [벼슬] [位也] [封也]
6392	卣	[잔] [盛酒] [中尊] [在鬯彝之間]。
6393	罇	[잔] [酒器]
6394	罍	[잔] [酒尊] [皆畫雲雷形]。
6395	罍	[잔] [罍也] [垂也]。
6396	櫛	[잔] [酒尊] [雲雷象] [劍飾] [櫛具] [鹿盧]
6398	觥	[잔] [酒觥] [鄉飲酒角也] [罰爵]
6399	觥	[잔] [酒卮總名] [飲人以酒亦曰觥]
6400	卮	[잔] [飲器] [鬯也]
6402	卮	[잔] [飲酒器] [染草名][紫赤色]

14) 하나의 한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각각의 의미를 의미항목이라고 부른다. 대체로 ‘의미항목’이란 사전에 나열되어 있는 의미의 항목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전에는 때로 字와 단어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자 아래 열거된 의미항목 중 어느 것이 동일한 단어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가를 구분한 다음에야 비로소 한 단어에 속한 의미항목들을 이 단어의 서로 다른 의미항목으로 볼 수 있다.(蔣紹愚 著, 이강재 譯, 『고대중국어 어휘의 미론』, 차이나하우스, 2012)

觶	觶	+	+	+	-	-	-	-
楮	楮	+	+	-	-	+	-	-
卮	卮	+	+	-	-	-	-	-
罍	●	+	-	-	-	-	-	-
罍	●	+	+	-	-	-	-	-

*‘爵’과 ‘觶’, ‘觴’, ‘卮’, ‘罍’는 [+종류][+용도/쓰임새]의 의미자질을 동일하게 가지지만 ‘爵’은 [제사 때 사용되는 향주를 담은 주기]로, ‘觶’은 [주기]로, ‘觴’는 [술잔]으로, ‘卮’은 [음주기]로, ‘罍’는 [예기]로 표시될 수 있다.

*‘卮’과 ‘楮’은 [+종류][+용도/쓰임새][+크기]의 의미자질을 동일하게 가지지만 ‘卮’는 [중간 정도의 성주]이고, ‘楮’은 [작은 잔의 음기]로 표시될 수 있다.

3. 청동기학에서 ‘잔’의 변별적 의미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잔’을 대상으로 한글 풀이와 한문 주석을 분석하여 異字同釋 상호간에 나타나는 변별적 의미를 파악해 보니 각각의 한자가 지니는 개별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異字同釋 자의 변별적 의미를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후 편찬될 국어사전이나 한자 사전에 개별 한자가 지닌 변별적 의미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타내어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되는 혼석을 가진 한자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 내용은 한글 풀이나 다른 자서의 한문 주석보다 그 내용이 상세하지만 사전이 지니는 혼석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동기학에서 말하는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하여 『字類註釋』異字同釋 ‘잔’에 해당하는 개별 한자에 대한 변별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3.1 ‘잔’의 의미

청동기학에서는 『字類註釋』에서처럼 한글 풀이나 한문 주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에 해당하는 기물을 먼저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잔’

을 어떻게 분류해 낼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잔’이란 무엇인지 잔의 개념부터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잔의 의미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잔’이란 국립국어연구원 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첫 번째 의미항목으로 ‘차나 커피 따위의 음료를 따라 마시는 데 쓰는 작은 그릇. 손잡이와 받침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잔은 ‘작은 그릇’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그릇’이란 말을 다시 사전에서 살펴보면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손잡이와 받침이 없으면 ‘잔’이라고 할 수 없는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것은 ‘잔’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살펴보니 잔으로 통하고 있는 한자어로는 잔(盞), 잔(淺), 배(杯), 배(盃), 배(坏) 등을 쓰고 있으며 완(盥), 완(椀), 완(碗) 등도 잔의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 잔(淺), 배(杯), 배(坏)는 각각 옥이나 흙, 나무등과 같은 재질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며, 잔(盞)과 배(盃)는 불로 구운 도자기 재질의 경우이다.

이러한 한자어는 잔의 재질, 쓰임새, 나아가 잔의 크기, 형태, 무늬 등을 통하여 잔의 명칭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글 풀이에서는 ‘잔’으로만 되어 있어 도대체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각각의 잔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잔’의 의미는 광범위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 말하는 잔이란 ‘차나 커피 따위의 음료 같은 액체를 담는 작은 그릇’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문제는 ‘잔’의 범주이다. ‘잔’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그 의미 범주에 속하는 잔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이에 ‘잔’이 사용되고 실존 기물이 발굴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잔을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그 잔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 청동기학에서 ‘잔’의 분류

청동기의 유형은 많은 분류가 있으나, 중국의 이학근(李學勤)교수는 『古文



	기타(술 뜨는데 사용했거나 술 그릇 등을 진설하는데 사용)(2)	勺, 禁
--	-------------------------------------	------

위의 표를 살펴보면 잔에 대한 분류 기준과 그 종류가 책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자서류에서도 마찬가지다. 잔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그 의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잔의 종류와 그 의미가 달라진다. 때문에 각각의 분류 체계 기준에서 달라지는 잔에 대한 모든 의미 분석은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3 청동기학에서 ‘잔’의 의미 비교

본고에서는 杜迺松의 『中國古代青銅器小辭典』, 容庚의 『商周彝器通考』, 하영삼, 『한자의 세계』 등을 중심으로 『字類註釋』 異字同釋 ‘잔’에 해당하는 13자에 대한 특징만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표5

한자	특징	사진
罍	-고대 음주기. 五爵 중 가장 큰 것. -형태: ‘爵’에서 변형된 것. 입 주위에 두 개의 삿갓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고, 바닥에 세 개의 다리가 있음. 술을 담는 배 부분이 큼. 주둥이와 꼬리가 없는 것이 특징. -용도: 술을 따뜻하게 하여 마시기 위한 대형 그릇. 높이가 68.8나 되는 것도 있어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제기나 종묘에 진설해 두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큼. -문양: 夔紋, 蕉葉饗饗紋	
爵	-고대 음주기. 술잔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형태: 주둥이, 꼬리, 2개의 기둥, 3개의 발을 기본으로 함. 그 모습이 마치 참새를 닮았다고 해서 ‘爵’(참새라는 뜻의 ‘雀’과 독음이 같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임. -용도: 술을 데워서 따르는 기구. 제사나 연회 때 사용되던 의례용 술잔. -문양: 饗饗紋, 雲紋	

17) ‘罍’는 『廣韻』과 『集韻』에서 “禮器也。”라 하여 ‘罍’는 본래 “예기”이다. 그런데 『正譌』











卣	-고대 성주기. -형태: ‘壺’와 가까운 용기로, 제량과 뚜껑이 있음.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입이 없는 주전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음. -용도: 전문적으로 제사 때 사용되는 향주를 담는 주기. -문양: 夔紋, 直線紋, 鳥紋	
罍	-고대 성주기. -형태: 대개 통형이고 입, 몸통, 권대의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어깨를 편 몸통에 밖으로 열린 입과 두루말이 발이 붙어 있음. 대부분은 횡단면이 원형을 이룬 등근 준입. -문양: 蕉葉夔龍紋	
甗	-고대 성주기. -형태: 그릇의 어깨 부분은 벌어지고 배 부분은 볼록하며 밑 부분은 오므라진 향아리 형임. ‘缶’에 비해 키가 비교적 큰 것이 특징. -용도: 제기의 하나. 술잔 또는 물그릇으로 사용된 듯하며 아랫배에 달린 한 개의 귀는 그릇 속에 들어 있는 액체를 기울여 쏟을 때 사용된 것으로 보임. -문양: 夔紋, 垂葉夔紋	
甗	-고대 주기. -형태: 주전자	*
甗	-고대 성주기. -甗와 같은 것으로 추정됨. 다만 나무로 만든 것을 지칭함.	*
甗	-고대 음주기. -어떤 지역에서는 ‘甗’의 지위를 대신해 쓰이기도 한 것으로 보아서 ‘甗’와 비슷한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 -형태: 등근 배와 바깥으로 향한 아가리, 두루말이 발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뚜껑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없는 것도 간혹 보임.	
甗	-고대 성주기. -형태: 외형은 타원형이고, 배 부분이 짧고, 밑 부분은 평평하며, 양측에 반달형태의 귀가 있음.	
甗	-고대 성주기. -형태: 타원형	
甗	-고대 성주기 -형태: 배 부분은 통통하고 아가리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짐. -문양: 垂葉象鼻紋	
甗	-고대 주기. -어떤 지역에서는 ‘甗’의 방언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甗’와 비슷한 형태나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	*

에서 “甗字從此。隸作甗。”라 하여 ‘甗’를 살펴보니 ‘甗’는 『說文』에서 “酒器也。”라고 하였다. ‘甗’는 ‘豆’에 속하는 기물로 원래 고대 음식물을 담는 데 사용한 받침대가 붙

盟17)	-고대 주기 -받침대가 굽고 그릇의 몸통 부분이 얇은 것이 많으며 활시위 모양의 무늬가 있음.	
------	---------------------------------------------------------	------------------------------------------------------------------------------------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하여 ‘罍, 爵, 卣, 罇, 罍, 罍, 罍, 罍, 觶, 觶, 栝, 卣, 罍, 盟’등을 성분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18)

표6

한자자형		의미자질						
표제자	고문자	종류	용도/쓰임새	재료	문양	크기	장식	모양
罍		+	+	-	+	+	-	+
爵		+	+	-	+	-	-	+
卣		+	+	-	+	-	-	+
罇		+	+	-	+	-	-	+
罍		+	+	-	+	+	-	+
罍		+	+	-	-	-	-	+
罍		+	+	+	-	-	-	-
觶		+	+	+	+	-	-	+
觶		+	+	-	-	-	-	+
栝		+	+	-	+	-	-	+

은 그릇인데 후에 “주기”로 변하여 사용된 것 같다.
 18) 이 연구 절차는 매우 엄격한 실증성에 바탕을 둔 추론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자료의 추출과정을 통해 되도록 많은 자료를 확보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이지 않는 면모를 이성적인 추리 과정을 통해 재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다. 게다가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이자동석 ‘잔’에 나타나는 13자에 대한 고고학 자료를 모두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자료의 한계라는 핑계로 ‘잔’의 특징으로 한 성분분석은 자료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 분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卮	卮	+	+	-	+	-	-	+
盃	●	+	+	-	-	-	-	-
罍	●	+	+	-	+	-	-	+

4. ‘잔’의 변별적 의미

2장의 『字類註釋』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잔]의 의미항목을 바탕으로 분석한 의미자질과 3장의 출토 기물에 근거한 고고학적 자료 및 청동기학에서 분류 분석한 ‘잔’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異字同釋 ‘잔’의 변별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異字同釋 ‘잔’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자들이 서로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의미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7

형태	형태(모양)										
	술 저장 기물류 (卮/爵/盃/罍/觥/觶/卮/盃/罍)						술잔류 (罍/爵/觥/觶/卮/盃)				
종류	술 저장 기물류 (卮/爵/盃/罍/觥/觶)						술잔류 (罍/爵/觥/觶/卮/盃)				
크기	대 (卮/罍/觥)		중 (爵/觶)		소 (盃)	대 (罍)	중 (爵/觥)		소 (觶/觶/卮/盃)		
용도	제사 (卮)	진설 (罍/觥)	연회 (爵/觶)		제사 (盃)	진설 (罍)	연회 (爵/觥)		제사 (盃)	연회 (觶/觶/卮)	
문양	조수문 (卮)	운위문 (罍/觥)	도철문 (觶)	觶*	罍*	도철문 (罍)	운위문 (爵)	觥*	조수문 (卮)	觶*/觶*	
재료	흙*	흙*	목기 (觥)	觶*	觶*	罍*	옥기 (罍)	爵*	각기 (觥)	卮*	각기 (觶) 목기 (觶)
변별 한자	卮	罍	觥	觶	罍	罍	爵	觥	卮	觶	觶

물론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만으로도 異字同釋字의 개별 한자가 지니는 구체적이고 변별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異字同釋 중 특히 구체적 사물을 나타내는 의미는 그 사물에 대한 형상을 실제 사물 또는 사진 등을 근거하여 그 의미를 좀 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면 그 사

전의 가치는 매우 높을 것이다.

그리고 『字類註釋』은 여타 다른 자료보다 자석에 대한 풀이가 상세하지만 사전의 훈석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 한자에 대한 변별적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변별적 의미를 분석하고, 2차적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하여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이자동석자의 개별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3차적으로 1차적 분석과 2차 분석의 결과를 통합하여 『字類註釋』異字同釋 ‘잔’에 해당하는 개별 한자의 변별적 의미를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異字同釋字의 변별적 연구는 이후 편찬되는 사전에서 異字同釋 현상이 최소화 될 것이고 동시에 개별 한자의 의미가 좀 더 상세하고 변별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기

이상 살펴본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異字同釋 ‘잔’의 변별적 의미 분석을 통해 한글 풀이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 한자마다 상세하게 뜻풀이 되어 있는 한문 주석에 개별 한자의 구체적이고 변별적인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에 나오는 의미가 후대 『國漢文新玉篇』,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 등에서 그대로 표현되기도 한다.¹⁹⁾ 이를 통해 한글 풀이와 한문 주석의 비교 분석은 각 한자에 대한 명확한 의미 규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字類註釋』은 한자 분류 사전의 하나로 10,968자의 한자를 5부 35류의 의미 영역별로 분류 수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한자 분류 사전은 한자의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한자 학습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동

19) 한국 자서에 나타나는 잔의 종류와 그 의미 변화

『字類註釋』 개별 자료들의 면밀한 분석은 보다 체계적인 의미 연구와 문헌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崔世珍(1527), 『訓蒙字會』.
- 柳希春(1576), 『新增類合』.
- 鄭允容(1856), 『字類註釋』, 건국대학교출판부.
- 鄭卿一(1819), 『全韻玉篇』, 미상.
- 鄭益魯(1908), 『國漢文新玉篇』, 平壤: 耶蘇敎書院.
- 池錫永(1909), 『字典釋要』, 京城: 匯東書館.
- 玄公廉(1913), 『漢鮮文新玉篇』, 京城: 大昌書館.
- 李鍾楨(1913), 『增補字典大解』, 미상.
- 朝鮮光文會(1915), 『新字典』, 京城: 新文館.
- 李鍾楨(1913), 『增補字典大解』, 미상.
- 張三植(1989), 『漢字大典』, 박문출판사.
- 廼松編(1980), 『中國古代青銅器小辭典』, 文物出版社.
- 李學勤(1991), 『고문자학 첫걸음』, 동문선.
- 古文字詁林編輯委員會(2004), 『古文字詁林』,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박영순(2004), 『한국어의미론』, 서울, 고려대학교출판사.
- 容庚著(2008), 『商周彝器通考』, 上海人民出版社.
- 漢語大辭典編輯處(2008), 『康熙字典』, 上海, 上海史書出版社.
- 서수백(2009), 『字類註釋』의 사전적 체제 연구, 대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현숙(2011), 『字類註釋』異字同釋現象量化調査與研究, 上海, 『歲月』.
- 蔣紹愚著, 이강재譯(2012), 『고대중국어 어휘의미론』, 서울, 차이나하우스.
- 곽현숙(2012), 『字類註釋』簡術, 『한국한자연구소 제6집』.
- 하영삼(2013), 『한자의 세계』, 신아사.
- 하영삼(2013),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 곽현숙(2013), 『韓國朝鮮時代字類註釋之異字同釋字整理與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Abstract

An Analytic Study on discriminate Meanings of the Same Explanation to Different Chinese character “잔(Jan)” in “Zileizhushi”

Kwak, Hyun-suk

There are 6,885 Chinese characters of “different word with the same explanation” among the whole 10,968 in the dictionary of “Types of Chinese Character with Their Notes (ZILEIZHUSHI)”. The different words with the same explanation were from two words to three till fifty, adding to th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the whole number was over 7,000. The reason of which lay at: firstly, the variety and complexity of Chinese characters with their own form and meaning; secondly, the meaning of words with their variety and complexity caused the duplication and alternation of the type in the dictionary of “Types of Chinese Character with Their Notes”. Therefore, the different words with the same explanation which were so called referred to the different Chinese characters using the same explanation of Korean. The different words were Chinese, while the same explanation pointed to the Korean explanation. The different words with the same explanation helped to find the detailed and dialect meaning of each Chinese character with their explanation. The research object of this paper was ‘잔’ appeared in the dictionary of “Types of Chinese Character with Their Notes”. Those 13 Chinese characters like “罍, 爵, 卣, 罇, 壘, 罍, 罍, 觶, 觶, 栝, 卣, 罍, 罍” had the same Korean explanation “잔”, all which held the basic elements of “category”, “size”, “use”, “design”, “material” according to their basic element of meaning and their components. Compared with Chinese characters in The Dictionary of Emperor Kangxi, we recognized carefully their different meanings. In addition, the distinction of each Chinese character in the dictionary of “Types of Chinese Character with Their Notes” had been inherited, from which we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the same explanations like ‘옥잔(罍), 적은잔(罍), 뿔문노흔술잔(罍)’ in the following compiling of “Main Explanations of

Dictionary”, “New Yu Pian of Korean”, and “New Dictionary”.

From analyzing of dialect meaning of “잔” with “different word with the same explanation” in the dictionary of “Types of Chinese Character with Their Notes”, it was not difficult for us to find that the Chinese explanation had kept the detailed and distinction meaning of each word though they had the same Korean meaning. Moreover, the Chinese notes appeared in the dictionary of “Types of Chinese Character with Their Notes” also presented in “Main Explanations of Dictionary”, “New Yu Pian of Korean”, and “New Dictionary”. Therefore, the research work of analysis between Korean and Chinese explanation made the great importance for exploring the exact meaning of each Chinese character.

Key words : ZILEIZHUSHI, different word with the same explanation, 잔(Jan), Korean meaning, Chinese original annotation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